

종합

무안공항서 오사카·제주도 간다

저가항공사(썬에어) 5월 8일 첫 운항

주차장 무료...착륙·정류료 면제 활성화

무안국제공항에서 일본 오사카와 제주도를 가는 신규 노선이 개설됐다.

전남도는 24일, 대한항공의 저가항공 자회사인 썬에어가 오는 5월8일부터 B737-800 기종을 도입, 무안~오사카 노선과 무안~제주 노선에 각

각 주 6회 운항한다고 밝혔다. 오사카 노선의 경우 화·목·토요일 밤 8시20분 무안을 출발하고, 제주는 수·금·일요일 오전 7시10분 출발한다.

무안공항에서는 지난 2008년 상반기까지 일본 후쿠오카와 도쿠시마 노선 등을 운항하다 중단됐었다.

전남도는 무안공항의 일본 노선 개설로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국제선 야간 운항에 따른 CIQ(출입국심사·검역 등) 편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비롯, 국제선 야간 도착시 리무진 버스를 운행하는 등 공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도 신규 노선 운항을 위한 항공사에 대해 착륙료, 정류료, 조류료를 1년간 전액 면제하고 무안공항 이용객 편의 도모를 위해 주차장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번 신규 노선 개설에 이어 관광협회, 여행사와 공동으로 태극, 필리핀 등 동남아 노선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홍석태 전남도 건설발전재장장은 "무안공항에서 일본 오사카와 제주도로 출발하는 노선은 지난 2008년 상반기까지 운항하다 지금까지 중단된 일본 노선을 재취항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김치연구소 건립 업무협약 세계김치연구소 건립 및 이전 업무협약식이 24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광태(왼쪽에서 세번째) 광주시장과 박원수(네번째) 세계김치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국가 R&D사업 단장 황창규 前삼성전자 사장

지식경제부는 황창규(57) 전 삼성전자 사장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총괄할 전략기획단 단장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략기획단은 지경부의 예산을 받는 R&D 사업의 방향과 예산 배분을 결정하는 새로운 기구다.

전략기획단을 책임지는 단장은 국가 CTO(최고기술책임자)로 3년 임기에 사무실과 차량이 제공되고 성과급을 제외한 3억원 정도의 연봉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기획단은 최경환 지경부 장관과 황 전 사장이 공동 단장을 맡고, 전·현직 CEO,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1급 공무원 등 15인 내외로 구성된다. 공무원은 의결권이 없어 결정과정에서 제외된다.

황 전 사장은 1994년 세계 최초로 256 메가 D램 반도체 개발을 시작한 인물이다. 2002년에 메모리 반도체의 집적도가 1년에 2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황의 법칙'을 제창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현재 삼성전자 상담역을 맡고 있다.

/연협뉴스

전남 1천명당 혼인 전국 최저

외국인 여성과 혼인 최다...구례 3명중 1명



전남지역 혼인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반면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비중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구례의 경우 3명중 1명 꼴로 외국인 여성과 혼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9 혼인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혼인 건수는 1만51건으로 이중 13.3%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구별로는 구례가 32.4%로 외국 여자와 혼인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청양군(28.5%), 부여군(25.8%), 강진군(25.6%), 보성군(24.8%)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단체 영양으로 혼인이 줄었다. 전남의 경우 전체 혼인 건수는 4.1% 감소했으며, 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를 말하는 조혼인율이 5.2건으로 부산·대구·전북

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는 혼인 건수가 8천88건으로 전년보다 4.5%가 줄었으며 조혼인율도 5.7건으로 3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혼인을 저하는 2006~2007년 쌍둥이, 황금돼지해 등 결혼특수가 끝난 여파에다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등이 진전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만혼 현상이 심해져 신랑, 신부의 나이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전남의 초혼 평균 연령은 남자가 31.7세, 여자는 28.1세로 지난해보다 각각 0.3세, 0.4세 상승했다. 특히 전남의 경우 남녀의 연령차가 3.6세로 전국에서 가장 컸다.

광주는 남자 31.4세, 여자 28.7세로 연령차는 2.7세로 조사됐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계엄군 철수 5월 21일 '광주시민의 날' 됐다

시의회 조례 개정

광주시민의 날이 제정 24년 만에 현재의 11월1일에서 5월21일로 변경됐다.

5월21일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옛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이 철수한 날이다.

광주시의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민의 날을 11월1일에서 5월21일로 변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시민의 날 변경 조례안

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시민의 날 행사는 5.18 주간인 5월21일 치러지게 된다.

광주시는 1986년 광주가 보통시에서 직할시로 승격한 11월1일을 기념해 광주시민의 날로 해왔다.

광주시의회는 광주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감안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인 5월18일과 계엄군 도청 철수일이인 5월21일 중 하나를

시민의 날로 정하기로 하고 전문가와 시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결과 최종 5월21일로 정했다.

이와 관련 강박원 의장은 지난 2002년 "광주의 역사적인 날인 5월21일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뜻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민의 날 변경을 처음으로 제안한 바 있다.

/최경림기자 cki@kwangju.co.kr

한국인 자살률 OECD 1위

OECD 1위

우리나라 국민의 자살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2006년 21.5명에서 2007년 23.9명, 2008년 24.3명으로 지속적으로 늘면서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한국에 이어 헝가리 21명, 일본 19.4명, 핀란드 16.7명, 벨기에 15.8명, 프랑스 14.2명, 뉴질랜드 12.2명, 미국 10.1명 순이었다.

실제 통계청 조사에서도 2008년 자살사망자는 1만2천858명으로 전년 대비 5.6%나 늘어났다. 하루 평균 35.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셈이다. 10년전인 1998년 자살자 8천622명과 비교하면 49%나 늘어난 수치다.

/연협뉴스

'F1 범도민지원협의회' 뒀다

민간차원 지원 전남도청 창립총회 본격 활동

오는 10월 영암에서 열리는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F1 범도민지원협의회'가 24일 전남도청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협의회는 F1 대회를 민간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도내 일선 시·군에서 직접 관광객을 맞는 관광·숙박·음식업 관계자 및 바르게살기협의회·새마을협의회 소속 인사 등 40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F1대회의 성공개회를 위한 자율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국내외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친절·질서·청결 운동 등을 대대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또, 교통 수송이나 숙박·음식, 의료, 홍보, 문화관광, 대회진행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두고 대회의 성공 개최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주영순 협의회 의장은 "세계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성원이 절대적"이라며 "지역민들의 참여 분위가 조성돼 적극 나서서 한편, 범도민성공개회를 위한 친절운동 전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F1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31일 F1대회 티켓오픈 행사를 갖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티켓 가격 알아보기 이벤트를 여는 등 본격적인 티켓 마케팅에 돌입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빛의만평' (Light's Review) by Kim Jong-woo. It features a cartoon illustration of a man sitting at a desk with a computer, looking thoughtful. The text discusses the importance of 'light' in a metaphorical sense, possibly referring to ideas or inspiration.

Advertisement for '결산공고접수안내' (Final Account Filing Guide). It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accounting firm, including phone numbers (227-9600, 227-9500) and an email address (dd8111@hanmail.net). It also lists services like tax consulting and auditing.

Table for '제 13기 결산공고' (13th Final Account Filing). It shows financial data for the period ending December 31, 2009. The table is divided into '재무상태표' (Balance Sheet) and '부채와 자본총계' (Liabilities and Equity). Key figures include total assets of 24,187,287,675 and total liabilities and equity of 24,187,287,675.

Table for '제 23기 결산공고' (23rd Final Account Filing). It shows financial data for the period ending December 31, 2009. The table is divided into '재무상태표' (Balance Sheet) and '부채와 자본총계' (Liabilities and Equity). Key figures include total assets of 547,222,082,245 and total liabilities and equity of 547,222,082,245.

Table for '제 4기 결산공고' (4th Final Account Filing). It shows financial data for the period ending December 31, 2009. The table is divided into '재무상태표' (Balance Sheet) and '부채와 자본총계' (Liabilities and Equity). Key figures include total assets of 58,910,905,277 and total liabilities and equity of 58,910,905,277.

Table for '제 3기 결산공고' (3rd Final Account Filing). It shows financial data for the period ending December 31, 2009. The table is divided into '재무상태표' (Balance Sheet) and '부채와 자본총계' (Liabilities and Equity). Key figures include total assets of 87,480,729,284 and total liabilities and equity of 87,480,729,284.